

## ‘기부자 예우’ 명예의 전당 개관

### 1억원 이상 기부자 83명 인적사항 기록한 기념 조형물 설치



▲ 명예의 전당 개관식이 지난 24일 본관 3층에서 열렸다. 사진은 오영교 총장과 기부자들이 조형물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조형물이 전시될 명예의 전당이 지난달 24일 개관했다. 본관 3층 입구에 새로 설치된 명예의 전당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공간으로 고액기부자의 성명을 새긴 조형물과 우리대학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공간으로 활용된다. 명예의 전당에서는 발전기금 기

부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좌우 벽면에는 조승환(예술대학 명예교수), 서정호(경영76졸), 서정인, 고현정(연영94졸)을 비롯한 1억원 이상 기부한 고액기부자 83명의 인적사항과 출신학과 등이 기재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기부한 517명에 대해서도 각각의 인적사항을 조형물에 기재해 벽면에 게시했다. 뿐만 아

니라 4대의 모니터를 통해 우리대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동국 마스터플랜’ 영상물을 상영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영교 총장과 전순표 총동창회장, 현성 스님(전 법인이사),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부회장, 송석구 가천의대총장(전 총장) 등이 개관식에 참석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기부자 50여명이

참석해 명예의 전당 개관을 축하했다.

오 총장은 개관식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부금이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발전기금 기부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학이 발전하려면 동문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동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개관식 이후 중앙도서관 AV실에서는 홍보영상 상영과 대학현황에 대해 보고회를 열어 우리대학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부탁하기도 했다.

명예의 전당 개관과 관련해 대외협력단 이선인 단장은 “이번 사업은 고액 기부자의 조형물 설치를 통해 기부자들을 특별 예우하고, 동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대학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발전계획을 알리는 공간으로서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의 전당 이외에도 동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대학에서는 명예의 전당 이외에도 ‘President Members’, ‘동국 아너스 클럽’ 등 다양한 동문예우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 김진문 신성약품(주) 회장 1억 기부 후학 양성 위해 쾌척 ... 국제관 건립 등에 사용 예정



신성약품(주) 회장 김진문(경영71졸)동문이 지난달 27일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본관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 동문은 후학양성과 대학발

전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고 밝혔다. 이번 기부와 관련해 오영교 총장은 “동문들의 지원과 기부는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학교발전

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진문 동문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국제관 건립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총장과학의 대화’ 내일(4일) 개최

‘총장과학의 대화’가 ‘캠퍼스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이란 주제로 내일(4일) 경영관 L401호에서 12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참가 대상은 학부 재학생, 휴학생 중 선착순 40명이다. 참가 신청은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와 함께 토론 주제에 맞는 질문 내용을 기재하여 hdk@dongguk.edu로 보내야 한다.

## 디플로머시 임덕규 동문 화관문화훈장 수상



제43회 잡지의 날을 맞아 정부가 수여하는 화관문화훈장 수상자로 임덕규 동문(법60졸)이 선정됐다.

임덕규 동문은 오늘(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임 동문은 디플로머시 회장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380명의 세계 유명 인사 인터뷰를 통해 국위선양을 한 공을 높게 인정받았다.

임덕규 동문은 우리대학 법학과 겸임 교수를 지냈으며, 제11대 국민당 국회의원과 우리대학 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 사시·행시 2차시험 전국 15위

### 사시 12명·행시 3명 합격 ... 매년 증가 추세

제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과 제52회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에서 우리대학 출신 합격자가 각각 12명, 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차 사법시험시험 총 합격자 수는 1,005명이며 우리대학은 12명의 합격생을 배출해 전국대학 합격자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이번 2차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작년 9명에 비해 3명이 증가했고,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사법시험

반 출신이다. 한편, 여성 합격자는 사상 최초로, 우리학교는 5명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합격자 수는 총 295명이며 이 중 우리대학 출신은 3명으로 전국대학 중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3차 행정시험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제3차 사법시험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된다.

## 금주의 동국인

### 초기경전의 시각으로 본 ‘금강경’의 세계

#### 출간 2주만에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오른 신웅산(국문91졸) 동문

“부처를 절대적인 신으로 보지 마라” 그동안 우리는 부처를 신화 속에 절대적으로 신격화된 대상으로만 접했다. 기존의 시각을 과감히 뛰어넘어 부처를 ‘신격화된 존재’가 아닌 ‘깨달음을 얻은 참사람’로 해석해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바로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의 저자 신웅산 작가다.

신 작가는 7~8년 전 부처의 일대기를 공부하기 위해 대승경전에서 거슬러 올라가 초기경전까지 공부하던 중 초기경전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 ‘금강경’을 동북아시아에 널리 퍼진 대중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초기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로 인해 그의 저서는 불교학계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대형 서점들에서 불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기도 했다.

확장시절에 불교학 개론을 공부하며 불교에 심취하게 됐다는 그는 요즘 우리대학 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중남과 학교의 교육정책은 교리적인 측면보다 정신적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는 철학자이자 사상가며 깨달음을 수행으로 증명한 참사람”이라 정의한 신웅산 작가. 그는 대승사상에 치우쳐 있는 불교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신선한 충격을 준 것처럼, 앞으



로 불교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 교수 70~80% 오 총장 개혁에 ‘부정적’

### 교수회 설문조사 결과 ...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처리는 실패

서울캠퍼스 교수 70~80%는 오영교 총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회가 서울캠퍼스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영교 총장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 70~80%에 이르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서울캠퍼스 교수 70~80%는 오영교 총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회가 서울캠퍼스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은 서울캠퍼스 교수 총 417명의 교수 중 보직·연구원·휴직 등을 제외한 347명 중 245명의 교수들이다.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 중 ‘총장의 능력과 자질여부’에 대해 75%

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제도의 학교발전 기여정도’ 문항에서도 82.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총장에 대한 요구사항’ 문항에서는 39.8%가 ‘즉각 퇴진’, 44.4%가 ‘기존정책 철회 후 재평가’에 응답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교수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교수회 재적인원 347명 중 79명이 참석하고 100여 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보고 이후 교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김무봉(국어국문학)교수는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수회 대의원으로 의제를 상정해야 한

다고 말했다. 최인숙(철학)교수는 교수들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회장단의 역할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몇몇 교수들은 이번 안건 이외에도 입학정원조정안을 비롯한 다른 안건들이 의제로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유대기(식품산업시스템공학) 교수회장은 “여러 교수들의 지적처럼 회장단의 역할부족을 인정한다”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제로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한 핵심관계자는 “설문항목에서 객관성이 부족했고 이전에는 실시하지 않던 총장 중간평가를 오 총장 때 실시한 것은 공평하

지 않다”고 밝혔다.

교수사회가 오영교 총장의 경영 방침에 관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오 총장이 교수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 총학생회 선거

### 25일부터 3일간 실시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를 포함한 중앙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내일(4일)부터 선거공고를 하고 10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된다. 14일 후보자를 공고하고 이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 지/면/안/내

2 1학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 학내 에너지 사용실태

4 감세정책의 실효성

5 송병호 교수 인터뷰

8 이색주점 탐방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8. 10. 1 ~ 10. 31

#### 100만등달기 기금

강중애(서울/교수, 10만원) 김영환(불교신도, 10만원) 백경임(경주/교수, 10만원) 박기훈(경주/교수, 5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만원) 이규춘(경주/교수, 5만원) 황순일(서울/교수, 5만원) 강민구(불교신도, 3만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김영재(경주/교수, 3만원) 변영하(학부생, 3만원) 백상현(스님, 2만원) 이동욱(경주/교수, 2만원) 김범중(서울/직원, 1만원) 이상철(불교신도, 1만원)

5만원) 전병건(서울/직원, 5만원) 정수원(서울/교수, 5만원) 조성혜(서울/교수, 5만원) 최창렬(서울/교수, 5만원) 황인규(서울/교수, 5만원) 박초생(동문, 3만원) 이금지(일반/기타, 3만원) 주성재(서울/직원, 3만원) 엄지운(동문, 2만원) 비래호(서울/직원, 1만원) 양한식(불교신도, 1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천원)

#### 단위기금

행정대학원(대학원, 461만5000원) 강선범(대학원/경영, 136만5500원) 김낙현(동문, 136만5500원) 박만식(대학원/경영, 136만5500원) 이상도(동문, 136만5500원) 이영수(대학원/경영, 136만5500원) 심규박(서울/교수, 105만원) 김용기(경주/교수, 84만원) 김나연(동문, 68만3000원) 문양수(대학원/경영, 68만3000원) 최정관(동문, 68만3000원) 이한구(경주/교수, 30만원)

▶ 2면에 계속

#### 기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신한은행 140-000-649193 SC제일은행 107-10-119210 농협 360-17-003822
- 인터넷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 접속 후 작성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동국대학교 대외협력팀 (02-2260-3300, 3793~5)

#### 세제 혜택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발전기금들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절차

- 1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 2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 3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처리

#### 세제 혜택 내용

1. 개인 기부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2.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단, 2009년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단위:원)
3. 기부로 인한 연간 소득별 절세 효과(2005년 기준)

기부금	연간 소득 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1백만원	170,000	170,000	260,000	350,000	350,000
2백만원	340,000	340,000	520,000	655,000	700,000
3백만원	510,000	510,000	780,000	945,000	1,050,000
4백만원	684,250	680,000	1,040,000	1,245,000	1,400,000
5백만원	753,250	850,000	1,300,000	1,435,000	1,750,000
6백만원	856,500	1,020,000	1,560,000	1,685,000	2,100,000
7백만원	912,500	1,190,000	1,820,000	1,955,000	2,450,000
8백만원	968,500	1,360,000	2,080,000	2,215,000	2,800,000
9백만원	1,024,500	1,530,000	2,340,000	2,475,000	3,150,000
1천만원	1,070,500	1,700,000	2,600,000	2,735,000	3,500,000

\* 위 표는 1인 가족 기준이며,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46회 동대학상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및 분량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제23회 동대문학상 작품 모집

모집분야 및 분량 시: 3편 내외 소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 공통사항

- 응모자격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경주캠퍼스 포함, 대학원생 제외)
- 모집기간 2008년 10월 20일(월) ~ 11월 14일(금)까지
- 접수방법 3.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단일 도착까지만 인정)
- 반드시 학교 공시사항이나 본사 홈페이지에서 검토하여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여러 작품을 제출할 경우 검토하는 한 장만 작성
- 작품에 이름 등 신상정보 기재 금지
- 작품은 원고지거나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양식으로 작성
- 총 3부씩 제출
- 보낼곳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동대학상상·문학상 담당자
- 문의처 전화 (02)2260-3495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독자지원
- 심사결과발표 2008년 12월 일차 동대신문 지상예정
- 기타 1.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금으로 바뀐 것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3. 당선작에는 개별보상합니다. 4.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본사가 보유하고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5.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사의 규정이 결정하며 따릅니다.

# 고객만족도 평가 작년보다 상승

## 친절성·업무 전문성·처리속도 등은 여전히 개선 필요

1학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작년보다 상승했지만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행정부서의 친절성이나 업무 처리 능력 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CS경영팀이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을 측정할 것이다. 조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교수 157명, 학생 2,368명, 대학원생 529명을 대상으로 E-mail과 CS광장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분야는 학과와 행정서비스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학과평가 부분은 개선과목, 전공강의, 성적평가 등을 평가했다. 행정서비스 평가는 업무처리, 고객 편의성, 전문성, 쾌적성, 친절성, 신뢰성 등을 평가했다.

학과 종합만족도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8.4점 증가했다. 단과대별로는 이과대, 문과대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과에서는 수학과, 윤리문화학 전공, 기계공학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학과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강의 진행 부분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선과목이 사회적인수요와 학문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향후 강의 개선에 앞서 사회적 수요와 해당 학문의 추세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양강의 평가에서는 수강 후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공에 대한 기초소양 습득, 교양강좌 인내 부분은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교양강좌에서는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 습득력 강화와 강좌에 대

한 홍보 증대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부서 평가 결과 종합만족도는 63.3점으로 전년 대비 4.9점이 상승했다. 학사운영실은 사회교육원,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본부부서는 대학미디어팀, 사업개발실, 취업지원센터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타관 중에는 생명과학연구원, 보건소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학사운영실은 전문성, 편의성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원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본부부서 또한 전문성, 편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응 기초소양 습득, 교양강좌 인내 부분은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교양강좌에서는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 습득력 강화와 강좌에 대

를 받았다.

개선사항으로 학사운영실은 공지부족, 불친절한 응대, 학생을 고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 등 점이 지적됐다. 본부 및 기타부서는 담당자를 만나기 어려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부족, 느린 일처리, 고객을 위한 자세한 설명 필요 등이 지적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강형석 교무팀장은 "결과 내용을 보고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제적인 회의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박만규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은 "막연한 비판도 있었지만 이를 수긍하고 지적된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태 기자  
wonder@dongguk.edu

## 환율급등, 학교 경영부담 가중

### 기자재, 해외 도서 구입비 급증 ... 환율대책 필요

최근 경제위기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학내에서도 수입물품, 해외출장 등의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경제위기를 체감한 구성원은 교수다. 공과대 A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위엔화 환율이 상승하여 실험기구가 작년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실험기구의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연초에 계획한 연구비에 차질이 생겨 실험 기자재 구입 및 연구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학과 B 교수는 "달러 가치가 30% 가량 상승하여 처음 400만원으로 계획했던 해외출장비용이 대략 500만원 선까지 상승해 사비를 지출하게 생겼다"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구원을 역시 "실험 소모품 가격의 상승으로 현재 계획과 있는 연구비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줄어 실험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실험기자재의 총 구매현황에 대한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R&D사업팀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품 수입에 차질이 생겨 교수들이 요청한 만큼의 실험기자재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저널 등의 구매를 담당하는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예산의 증가가 없을 시 부득이하게 현재 구독하고 있는 해외 정기간행물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페이지 잡지와 인터넷 잡지를 함께 구독하고 있는 잡지들을 인터넷 잡지로 전환·구매하여 구매 단가를 낮추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급등으로 인한 학내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내 예산 편성 및 집행 담당 부서는 해외 수입 품목의 물가를 고려한 예산의 적절한 재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

jeong0424@dongguk.edu

### 면접스킬 프로그램 참가자 선착순 모집

취업지원센터는 오늘부터 11일까지 3·4학년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면접스킬 마스터 플랜은 유형별 면접실습, 인사담당자와의 무료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명단은 오는 12일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취업지원센터는 오늘부터 11일까지 3·4학년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면접스킬 마스터 플랜은 유형별 면접실습, 인사담당자와의 무료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명단은 오는 12일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저요 저요!**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고교탐방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고교탐방엔 고척고등학교 1, 2학년 70여명의 학생이 방문해 홍보 동영상 감상 및 캠퍼스 투어를 했다. 사진은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우리학교 관련 퀴즈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인> jeong0424@dongguk.edu

### 산학협력관 기공식 12월 17일 예정

산학협력관의 기공식이 12월 17일에 열린다. 산학협력관은 학교 숙원사업으로 지난 1년여 간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내년 1월 실제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학협력관은 지하 4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50,400㎡의 규모로 총 수용인원 750명의 기숙사를 포함하여 강의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습실이 신설된다. 산학 협력관은 2011년 2월 완공 예정이다.

## 이진구 교수, 갈륨비소 건 다이오드 국산화

### 레이더 센서 핵심부품 수입대체 효과 ... 내년 출시예정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센터장=이진구·전자공학)가 국내 최초로 94GHz GaAs Gunn(갈륨비소 건) 다이오드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밀리미터파와 신기술 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 초부터 94GHz 갈륨비소 건 다이오드 칩 개발을 시작했으며, 2007년 10월 방산 전문 개발업체인 엘트로닉스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국방과학연구소 김완주 박사의 기술자문을 받아 개발된 칩의 조립 및 패키지 기술을 공동 개발해왔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94GHz 건 다이오드는 밀리미터파 대역 레이

더 센서의 신호원으로 사용되는 전압조정 발진기의 핵심 부품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밀리미터파 센서의 핵심부품 국산화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품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엘트로닉스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 내년부터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94GHz 건 다이오드 개발이 이어 차량의 전후방 충돌방지센서의 핵심부품인 77GHz 갈륨비소 건 다이오드도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 동악로에서

김윤수 기자  
ysher021@dongguk.edu



## 편독(偏讀)

시험이 끝난 지난주, 도서관은 한적했다. 이러한 풍경은 더 이상 대학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점만을 중시하는 학습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자료를 열람하고 자신의 학문적 소양을 쌓는데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중앙도서관 대출 도서 순위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대출 횟수 10위권에 있는 도서 중 8권이 일방조각이나 판타지 소설이다.

나머지 2권에 경우에도 수업시간 활용하는 도서이다. 중앙도서관 대출반납일 이동은 직원 "요즘 학생들은 각종 시험준비나 어학관련 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생들의 도서 대출이 전공서적과 시험관련 서적에만 국한되는 점을 아쉬워 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주로 대출하는 도서가 일반 소설이나 판타지소설에 편중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념의 시대였던 80년대

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학과 이영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교양서적을 읽고 그와 관련된 과제를 내줘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영한 교수는 "다양한 도서를 읽는 것은 대학교육의 필수인 학문적 소양과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도서를 읽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글벗상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으로 선정된 이학선(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3학기)양도 다방면의 책을 읽어 학생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이 양은 "다방면의 도서를 참고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취업관련 공부도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목적인 취업공부만이 중시된다면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참된 지성인 양성은 말기만 하다. 교수들은 전공의 단편적 이해에서 벗어나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수박 겉핥기 식의 학습방법에서 탈피해 깊이있는 공부에 매진

해야한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공부라면 마치 모래위에 다락집처럼 험사리 무너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인생의 자양분을 섭취해야할 젊은 시절을 판타지 소설로 채우는 것은 아깝다. 다양한 종류의 책과 벗하며 지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공부라면 마치 모래위에 다락집처럼 험사리 무너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인생의 자양분을 섭취해야할 젊은 시절을 판타지 소설로 채우는 것은 아깝다. 다양한 종류의 책과 벗하며 지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 회전문대

### 우문우답

○...학내에는 여기저기 빨간 사

람밖에 없다? 1학기에 실시했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교수, 학생들은 막연하게 비난하고, 싫은 소리 들은 해당 부서들, 화가 나서 항의했다는데, 신중한 비판과 동국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태도는 동국에서 볼 수 없는 먼 나라 얘기?

### 시력이 곧 실력?

○...시험시작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부되고, 우리 모두 집중하여 문제지를 볼 때, 유독 나의 펜촉을 따라가던 너의 시선. 우여곡절 시험시간이 끝나고 너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니가 웃으며 남긴 명언 한막다, "시험은 실력이 아닌 시력!"

### 주객전도

○...시험기간엔 휴강이 아닌데도 강의실이 텅텅 빈다는데. 이유인즉슨,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나오지 않는것.

이 때문에 수업진행이 안될 뿐만 아니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사기도 떨어진다고 한다. 시험을 위한 수업이 아닌, 수업을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하진 않을까? 이에 회전문대자 왈, "수업 잡아먹는 시험, 주객전도된 수업과 시험."

### 동국 미술관

○...동국대 도서관은 그래피티 예술관? 벽 등에 낙서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동국대 도서관에서 책 만큼이나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피티 작품은 수없이 새겨져 있지만 정작 작가는 누구인지 모른다. 이건 동국 그래피티 그림만의 특징?

### 제1회 정의인의 날 행사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는 '제1회 동국 정치외교학과인의 날' 행사를 오는 8일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화과 개설 62년째를 맞이하는 정치외교학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후배간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친선 축구대회와 동문들이 하나되는 한마당잔치를 가질 예정이다.

### ▶ 1면에서 계속

고창택(경주/교수, 20만원) 배의웅(경주/교수, 20만원) 장성택(경주/교수, 20만원) 양인현(동문, 15만원) (주)캐노아(기업/재단, 10만원) 김문호(경주/교수, 10만원) 권동희(서울/교수, 10만원) 이동용(경주/교수, 10만원) 김상경(서울/교수, 5만원) 송동진(경주/교수, 5만원) 이윤호(서울/교수, 5만원) 최선우(동문, 3만원) 김명숙(동문, 1만원) 김문영(동문, 1만원) 박원배(동문, 1만원) 서영주(동문, 1만원) 신경린(동문, 1만원) 주미하(동문, 1만원)

### 발전기금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1932만500원) 최희숙(동문, 200만원) (주)일아하이텍(기업/재단, 30만원) 안우섭(경주/교수, 25만원) 정현(서울/교수, 25만원) 임태평(경주/교수, 20만원) 김현동(서울/교수, 14만원) 박정국(서울/교수, 10만원) 양성문(불교신도, 10만원) 이선인(서울/직원, 10만원) 이한구(경주/교수, 10만원) 이한구(경주/교수, 10만원) 정재형(서울/교수, 10만원) 금동희(일번/기타, 5만원) 김호성(서울/교수, 5만원) 니덕영(경주/교수, 5만원) 민창식(서울/교수, 5만원) 박근욱(경주/교수, 5만원) 박광호(서울/직원, 5만원) 이수경(경주/교수, 5만원) 이영배(경주/교수, 5만원) 정필현(경주/교수, 5만원) 김영일(동문, 4만원) 신병수(서울/직원, 3만원) 신하균(서울/직원, 3만원) 이상환(동문, 3만원) 이호원(동문, 3만원) 김용갑(서울/직원, 2만원) 김중주(서울/직원, 2만원) 박건(서울/직원, 2만원) 변승재(서울/직원, 2만원) 양윤정(서울/직원, 2만원) 이진욱(동문, 2만원) 이혁준(서울/직원, 2만원) 정인준(서울/직원, 2만원) 정왕근(서울/직원, 2만원) 조영신(서울/직원, 2만원) 진혁진(서울/직원, 2만원) 박주영(서울/직원, 1만원) 김봉국(동문, 1만원) 손승원(동문, 1만원) 송진원(동문, 1만원) 심동민(동문, 1만원) 정

해련(스님, 1만원)

###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유세원(불교신도, 10만원) 이석현(일산/직원, 10만원) 이순욱(일번/기타, 10만원) 일현스님(스님, 10만원) 윤상희(불교신도, 6만원) 윤용대(불교신도, 6만원) 김도균(경주/교수, 5만원) 김운재(불교신도, 5만원) 김중필(경주/교수, 5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만원) 윤영해(경주/교수, 5만원) 제수호(동문, 5만원) 김경탁(일번/기타, 3만원) 김위동(불교신도, 3만원) 윤인자(동문, 3만원) 정순욱(불교신도, 3만원) 최현미(불교신도, 3만원) 홍관표(불교신도, 3만원) 김숙자(불교신도, 2만원) 온상오(동문, 2만원) 이철은(동문, 2만원) 이만(경주/교수, 1만5000원) 김형준(동문, 1만원) 노미숙(불교신도, 1만원) 이규석(동문, 1만원) 이규옥(동국한방/직원, 1만원) 이순출(불교신도, 1만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 장악기금

성관스님(스님, 2500만원) 이광훈(대학원/문화예술, 1000만원) 동부문화재단(기업/재단, 980만원) 정각스님(대학원/불교, 500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490만1500원) 김성일(동문, 300만원) 김효정(일번/기타, 300만원) 박선동(경주/교수, 300만원) 전영일(서울/교수, 180만원)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기업/재단, 150만원) 김환기(서울/교수, 100만원) 추광문(동문, 100만원) 박경자(일번/기타, 50만원) 설진일(일번/기타, 30만원) 이용백(동문, 30만원) 송관수(동문, 20만원) 여귀구(동문, 20만원) 이대서(동문, 20만원) 이용한(서울/직원, 20만원) 천수스님(스님, 20만원) 홍경희(불교신도, 20만원) 황산스님(스님, 20만원) 최정훈(경주/직원, 15만원) 권혁복(동문, 10만원) 김순영(서울/교수, 10만원) 김애주(서울/교수, 10만원) 김영민(서울/직원, 10만원) 김영민

(서울/직원, 10만원) 김중규(경주/직원, 10만원) 박종훈(서울/교수, 10만원) 박해구(경주/직원, 10만원) 배종남(동문, 10만원) 법의스님(스님, 10만원) 서은숙(서울/교수, 10만원) 신재호(서울/교수, 10만원) 이강식(경주/직원, 10만원) 이명신(동문, 10만원) 이상기(경주/직원, 10만원) 이상호(동문, 10만원) 이진구(서울/교수, 10만원) 정병조(서울/교수, 10만원) 허남길(서울/교수, 10만원) 허선도(일번/기타, 10만원) 송익균(경주/직원, 7만5000원) 박상관(서울/직원, 7만원) 고명근(동문, 5만원) 권경의(동문, 5만원) 김남영(동문, 5만원) 김명실(동문, 5만원) 김영우(일번/기타, 5만원) 김성중(서울/교수, 5만원) 김영민(서울/교수, 5만원) 김용호(동문, 5만원) 김우태(동문, 5만원) 김은형(일번/기타, 5만원) 김정연(스님, 5만원) 김진희(서울/직원, 5만원) 김한(서울/교수, 5만원) 김현호(학부생, 5만원) 김효신(동문, 5만원) 노현균(서울/교수, 5만원) 박광관(서울/교수, 5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은철(동문, 5만원) 박정욱(동문, 5만원) 박종희(경주/교수, 5만원) 석광열(경주/직원, 5만원) 손희주(동문, 5만원) 송효영(동문, 5만원) 신기훈(서울/직원, 5만원) 양재일(일번/기타, 5만원) 유훈우(서울/교수, 5만원) 이권학(서울/직원, 5만원) 이상봉(경주/직원, 5만원) 이상보(동문, 5만원) 이익성(서울/직원, 5만원) 이상무(동문, 5만원) 장시기(서울/교수, 5만원) 장원희(서울/교수, 5만원) 정중수(동문, 5만원) 장진(동문, 5만원) 정경실(서울/직원, 5만원) 정향란(경주/직원, 5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장현(동문, 5만원) 차승철(경주/직원, 5만원) 최인숙(서울/교수, 5만원) 최정숙(서울/직원, 5만원) 최지선(동문, 5만원) 홍선기(동문, 5만원) 황승현(서울/교수, 5만원) 황병걸(서울/직원, 5만원) 황인일(동문, 5만원) 광동협(동문, 4만원) 김갑기(서울/교수, 4만원) 유상복(동문, 4만원) 윤원식(서울/직원, 4만원) 이상문(동문, 4만원) 강선희(동문, 3만원) 고완식(동문, 3만원) 구광모(동문, 3만원) 권기섭(동문, 3만원) 김규환(서울/직원, 3만원) 김상태(동문, 3만원) 김성수(동문, 3만원) 김영진(서울/직원, 3만원) 김원태(동문, 3만원) 김정근(동문, 3만원) 장정연(서울/직원, 3만원) 김중성(동문, 3만원) 김중식(동문, 3만원) 김중문(서울/직원, 3만원) 김학원(서울/직원, 3만원) 김형택(동문, 3만원) 김해배(동문, 3만원) 민준서(경주/직원, 3만원) 박득현(경주/직원, 3만원) 박민성(동

문, 3만원) 박민서(동문, 3만원) 박상관(서울/직원, 3만원) 박서진(서울/직원, 3만원) 박재준(동문, 3만원) 박진수(동문, 3만원) 방중혁(서울/직원, 3만원) 변민우(서울/직원, 3만원) 선우진(동문, 3만원) 손세호(경주/직원, 3만원) 송석현(동문, 3만원) 심익성(서울/교수, 3만원) 양성용(서울/직원, 3만원) 임종호(동문, 3만원) 여현숙(동문, 3만원) 오윤광(동문, 3만원) 유광호(서울/직원, 3만원) 유진(서울/직원, 3만원) 유한필(서울/직원, 3만원) 이경(동문, 3만원) 이연주(서울/직원, 3만원) 이영실(서울/교수, 3만원) 이재웅(동문, 3만원) 이주성(서울/교수, 3만원) 이지희(동문, 3만원) 이창학(서울/직원, 3만원) 일연스님(스님, 3만원) 임각균(동문, 3만원) 장동선(동문, 3만원) 장병현(동문, 3만원) 전현준(동문, 3만원) 정병경(서울/직원, 3만원) 정운재(동문, 3만원) 정한기(동문, 3만원) 조당호(동문, 3만원) 조복현(동문, 3만원) 조순서(서울/직원, 3만원) 조진영(동문, 3만원) 조충영(서울/교수, 3만원) 최남복(동문, 3만원) 최수호(경주/직원, 3만원) 최우석(서울/직원, 3만원) 최창영(동문, 3만원) 최태수(서울/직원, 3만원) 탁상민(서울/직원, 3만원) 함한진(동문, 3만원) 조우영(동문, 2만5000원) 김경배(동문, 2만5000원) 강영진(동문, 2만원) 김규중(동문, 2만원) 김금용(동문, 2만원) 김무봉(서울/교수, 2만원) 김민성(동문, 2만원) 김봉주(서울/직원, 2만원) 김상우(서울/직원, 2만원) 김상일(서울/교수, 2만원) 김용래(동문, 2만원) 김은희(경주/직원, 2만원) 김정원(동문, 2만원) 김원진(동문, 2만원) 김중기(서울/직원, 2만원) 김주호(동문, 2만원) 김춘식(서울/교수, 2만원) 김태형(서울/직원, 2만원) 박경준(서울/교수, 2만원) 조충영(서울/교수, 2만원) 박만규(서울/직원, 2만원) 박희성(서울/직원, 2만원) 박혜경(동문, 2만원) 서재덕(동문, 2만원) 성낙주(동문, 2만원) 송병국(동문, 2만원) 신인호(동문, 2만원) 신지형(서울/직원, 2만원) 여지연(동문, 2만원) 윤준호(동문, 2만원) 이도파(동문, 2만원) 이만희(서울/교수, 2만원) 이선진(동문, 2만원) 이성연(동문, 2만원) 이승남(서울/교수, 2만원) 이원규(동문, 2만원) 이유기(동문, 2만원) 이익성(서울/직원, 2만원) 이종대(서울/교수, 2만원) 이혜선(동문, 2만원) 이호선(동문, 2만원) 임종민(동문, 2만원) 장영우(서울/교수, 2만원) 정병준(서울/교수, 2만원) 정우영(서울/교수, 2만원) 정창근(서울/교수, 2만원) 정환국(서울/교수, 2만원) 정환섭(동문, 2만원) 주현석(서울/교수, 2만원) 채명식(동문, 2만원) 최준혁(서울/직원, 2만원) 한민수(서울/교수, 2만원) 한형인

(동문, 2만원) 황종연(서울/교수, 2만원) 구한모(동문, 1만원) 권중진(동문, 1만원) 김용희(동문, 1만원) 김현선(동문, 1만원) 남상필(동문, 1만원) 박광영(동문, 1만원) 윤종희(동문, 1만원) 이수창(스님, 1만원) 장세광(동문, 1만원) 정성진(동문, 1만원) 정진우(동문, 1만원) 정하창(동문, 1만원) 장보영(동문,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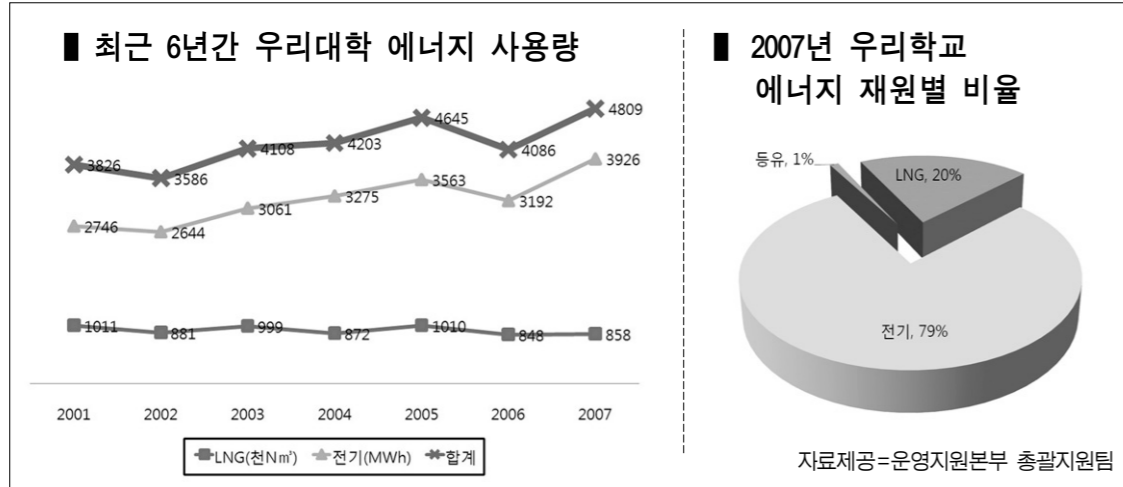
### 특정목적기금

이방주(기업/재단, 10억원) 김진문(대학원/경영, 5000만원) 정각원(시할, 898만1600원) 박의룡(동문, 100만원) 한영욱(일번/기타, 100만원) 김재문(경주/교수, 20만원) (주)대운(기업/재단, 10만원) 김복순(경주/교수, 10만원) 김수동(경주/교수, 10만원) 손순애(일번/기타, 10만원) 정준기(경주/교수, 10만원) 정창규(대학원/불교문화, 10만원) 조복현(동문, 10만원) 김동협(경주/교수, 5만원) 박순홍(경주/교수, 5만원) 박해구(경주/직원, 5만원) 석광열(경주/직원, 5만원) 오현욱(경주/교수, 5만원) 윤진호(경주/교수, 5만원) 이진현(경주/직원, 5만원) 장규태(동문, 5만원) 최정훈(경주/직원, 5만원) 김상우(서울/직원, 3만원) 김신재(경주/교수, 3만원) 김영(동문, 3만원) 김해정(동문, 3만원) 이남주(동문, 3만원) 이은준(동문, 3만원) 이홍화(포항병원/직원, 3만원) 최충택(동문, 3만원) 최호진(서울/직원, 3만원) 권희배(경주/직원, 2만원) 김상필(포항병원/직원, 2만원) 선광규(동문, 2만원) 정해룡(경주/교수, 2만원) 최희수(동문, 2만원) 전영도(포항병원/직원, 1만5000원) 김철용(경주/직원, 1만원) 박갑식(대학원/행정, 1만원) 박권호(동문, 1만원) 박기명(동문, 1만원) 배건우(동문, 1만원) 배병국(경주/직원, 1만원) 안수현(학부생, 1만원) 양형진(불교신도, 1만원) 이규옥(동국한방/직원, 2만원) 이만경(주/교수, 1만원) 이종두(동문, 1만원) 조영준(동문, 1만원) 조창욱(경주/교수, 1만원) 진동원(동문, 1만원) 황진환(동문, 1만원) 윤병환(동문, 5000원) 이기범(경주/직원, 5000원)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 특집

# 에너지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기요금 19억원에 계량기는 단 두 개 ... 정확한 실태파악과 재생에너지 확보 노력해야



▲늦은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있는 중앙도서관의 복도

지난 30일 밤 11시.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시간. 학생회관에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원흥관에도 강의실의 형광등은 환히 불을 밝히고 있다. 해화관 로즈버드 입구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자판기가 전원이 켜진 채 우두커니 서 있다. 에너지 불감증에 빠진 동학의 현주소다.

사실 에너지 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06년 국내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의 전력 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대학은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 중 대학과 상용건물이 23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호텔(20곳), 병원(18곳), 연구소(14곳)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우리대학이 에너지 다소비 대학 23곳의 순위에는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대학도 다른 대학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가 적지 않은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순위에는 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이처럼 많은 대학이 에너지 다소비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교육용으로 처리돼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요금이 싸다보니, 요금 걱정없이 특별히 관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가 많다는 것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학인들의 인식이 낮고 그러다보니, 에너지 절감에 대해 둔감하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계량기의 문제다. 수 십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의 계량기 수는 모두 2개.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계량기 단 두 개만이 우리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양을 측정해줄 뿐이다. 그러다보니, 어느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총량으로 한 달에 얼마정도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사실만 파악될 뿐이다. 이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지역 4년제 종합대학중 건물별로 계량기가 설치된 대학은 중앙대가 거의 유일했다. 나

머지 대학들도 우리대학과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건물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의 전기가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다.

### 우리대학 에너지 절약 대책 현황

우리대학의 한 해 전기사용량은 총 3926메가와트(2007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9억원이 넘는 돈이다. 또, 액화천연가스의 요금은 약 3억원이다. 한해에 20억원이 넘는 돈이 전기와 가스요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학교 측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모두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증개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물의 전기용량 증설과 천정형 냉난방 시스템 도입이 에너지 사용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산학협력관과 도서관, 정보문화관 증축이 이뤄지고 나면 에너지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학교 측은 에너지 절감 및 경영개선지원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노후 등 기구 교체 △해화관, 원흥관, 본관 등의 EHP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중앙도서관 공조기 운용개선 등을 통해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 측은 또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 사용되는 가로등을 태양열에너지로 활용한 등기구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의실의 전기사용 절약을 위해 이용자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등이 꺼지는 광전식 스위치와 센서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다른 대학들의 노력방안

그렇다면 다른 대학의 현황은 어떨까.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이상의 대학에서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사용되는 대체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는 현재 20여개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완공된 이화여대의 'ECC(이화캠퍼스센터)'는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정한 온도의 지하수를 이용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 에너지 절약시스템인 서멀 레버린스(Thermal Labyrinth) 시스템을 구현해 지상에서 들어온 외부공기를 이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대학들도 있다. 제주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면 자동으로 냉·난방 시설이 차단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공주대는 화장실과 강의실 일부에 센서를 부착했다. 센서가 열과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된다. 공주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이전 대비 전력의 30%를 절약,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각 대학들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활발하다. 서울대는 △순번제 운전 △승용차 5부제 △냉방 온도 유지하기 △복도 조명등 절반 이상 소등하기 등을 시행했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는 학교의 상징이었던 정문의 야간 조명조차 꺼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 해외대학들의 선도적인 노력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미국에서는 2007년 152개 대학 총장들이 '미국 대학총장 기후변화 위원회'를 구성, 대학 캠퍼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498개의 미국 대학들은 대학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최대한 줄이고, 감축이 어려운 부분은 감축실적을 구매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경우 녹색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2년간 이산화탄소 6천7백26톤, 물 17만 3천 배럴, 폐기물 90톤을 줄여 연간 88만달러의 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에너지 절감, 부족한 2%를 찾아라

우리대학도 현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그 한 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대학들이나 에너지 절감에 앞서나가는 대학에 비하면 부족한 2%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대학이 절감해줄 수 있는 에너지 절감과 재생 가능 에너지활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본부와 교수, 학생들이 참여해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학교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여기에서 캠퍼스 내에서 이용되는 각종 에너지의 양과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바이오연료 사용,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장기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내구성원들에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난해에 사용했던 에너지 요금의 10%만 절감해도 2억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다. 학교당국과 교수, 학생이 뜻을 모아야 할 때다.

신중서 기자  
jongseo@dongguk.edu

### 에너지절감을 위한 생활양식 사례명

#### 1. 여름엔 1도 ↑, 겨울엔 1도 ↓

겨울에 실내온도를 1도 정도 낮추면 도시가스나 석유보일러 유지비용을 4%가량 절감할 수 있고 여름에도 에어컨에 들어가는 소비전력을 눈에 띄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 2. 조명부터 바꿔보자

형광등이 백열전구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란 사실은 알지만 그 청백한 청백색 불빛은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고?

모르는 소리. 개선된 기술 덕에 이제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빛을 내는 형광전구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새 형광전구는 예전 전구에 비해 똑같은 밝기에 10배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75%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 3. 전기출혈구를 물리치자

실내등을 잠시 끄고 주위를 둘러보자.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면 '진짜' 꺼졌다고 생각하는가?

휴대폰 충전기, 컴퓨터 플러그 등 이들은 모두 대기상태다. 이런 대기상태에서도 전자제품들은 전기를 조금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잠시 빼둔다면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 10%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

#### 4. 나만의 컵, 나만의 스타일

어디를 가든 당신만의 컵과 함께 움직여라. 2003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용량은 줄고 있지 않다.

한 번 쓰고 버린 일회용컵은 매립장으로 직행하고 20년이 지나야 겨우 분해가 된다.

또한 종이컵, 생수병과 같은 플라스틱 컵, 금속 캔 대신 당신이 그림자처럼 당신만의 컵을 챙긴다면 금속캔 스틸컵은 개 약 1kg 당 60W짜리 전구를 약 5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 나의 미래를 더 새롭게 바꾸겠다! 나의 신념은 이를 수 있는 꿈인가?

### 더 큰 꿈을 위한 동국대학교 대학원

4년 연속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수행대학 - 영성대학원  
CFA(공인재무분석사) MBA 과정 신설 - 경영전문대학원  
디지털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전공 신설 - 언론정보대학원  
사이버로렌스 전공 신설 - 국제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신설 -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미국법무전공

YES  
 NO



### 2009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입생 모집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학원	10.29(수) ~ 11.04(화)	11.15(토) 10시	http://gs.dongguk.edu	02)2260-8861~4
영성대학원	10.27(월) ~ 11.03(월)	11.07(금) ~ 08(토) 9시	http://dic.dongguk.edu	02)2260-3763~4
경영전문대학원(주간/야간)	11.10(월) ~ 11.25(화)	11.29(토) 10시	http://mba.dongguk.edu	02)2260-8884~5
불교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2.05(금) 5시	http://gsbs.dongguk.edu	02)2260-3096~8
행정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1시	http://gsps.dongguk.edu	02)2260-3102~3
교육대학원(야간)	11.05(수) ~ 11.14(금)	11.29(토) 2시	http://gsedu.dongguk.edu	02)2260-3110~1
문화예술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10시	http://gsca.dongguk.edu	02)2260-3606~7
언론정보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10시	http://gsai.dongguk.edu	02)2260-3733~5
국제정보대학원(야간)	11.10(월) ~ 11.21(금)	11.29(토) 2시	http://gsai.dongguk.edu	02)2260-3733~5
법무대학원(야간)	11.17(월) ~ 11.28(금)	11.29(토) 2시	-	02)2260-3226~7

## 한국 MBA에 GMAT 면제받고 미국 MBA까지, 그게 가능하겠어?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127년 전통의 명문대학인 텍사스주립대학 시스템의 일원

YES  
 NO

GMAT 면제받고, 2년 반 만에  
한국 MBA와 미국 MBA를 동시에!

이제 'Dongguk Business School'에서  
미국 명문 텍사스주립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의  
가시워 명성을 국내 수준의 저렴한 학비로  
한꺼번에 누리십시오!



### Dongguk Business School MBA 프로그램

국내 최초 경영학교 최고 인증 획득  
AACSB(미국경영교육인증원) PAC 승인

General MBA  
최신경영이론과 실무까지 제공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  
Culture-Oriented MBA  
엔터테인먼트경영, 스토리텔링, 문화산업전략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문화경영관리자 양성  
Entrepreneurship MBA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기업의 한정된 경영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기업경영능력 배양  
CFA MBA (신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투자분석전문가 양성(CFA : 공인재무분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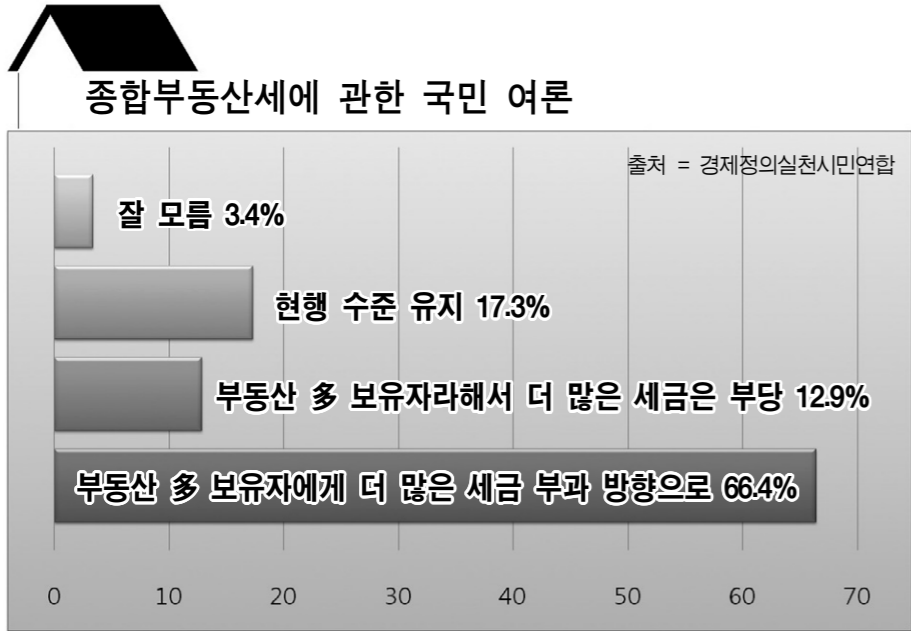
### 2009 전기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2008년 11월 10일(월) ~ 11월 20일(목) • 02-2260-8884~5 / mba.dongguk.edu

위기 속 한국 경제, 감세정책의 효과는?

# 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 소비진작 효과 의문

## 시기성, 효과, 원칙, 사회적 합의 모두 부족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 초, 정부의 교환을 정책은 고유가 상황에 직면하면서 물가폭등을 불러일으키더니 하반기 들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환율급등과 주가폭락·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자산가치의 하락에서 이제 실물경제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다 19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에 걸쳐 사실상 폐지와 다름이 없는 세계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있지만 정작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논란거리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선 정부의 감세정책의 내용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 감세의 시기성 문제

첫째로 정책의 시기성 문제가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경기불황이 단기간에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와 한국은행,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수출 역시 세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올해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는 기업의 투자 부진,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의 하락과 가계부채의 증가,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의 도산 등 한동안 경기불황의 여파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정부지출은 자연적으로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의도적으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지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만큼 큰 폭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국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 국제세수입액은 179.6조원이다. 이는 올해의 국제 세수입액보다 7.6%가 오른 금액이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 예상한 만큼의 세수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감세금액인 13조원의 세수가 내년에 줄어들게 되면 최소한 총 25.7조가 올해보다 부족하게 된다. 이를 감당할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부유층 중심의 감세 혜택

둘째, 감세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의 이번 감세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주로 상위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으면서, 진정으로 소비를 진작해 내수를 일으킬 수 있는 감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내용은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 진작이나 투자촉진과는 거리가 멀다. 감세정책

### 2008 세계개편안 주요사항

<b>소득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를 과표 구간별 2%p 인하</li> <li>· 1인당 공제 확대 (100만원 → 150만원)</li> <li>·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 확대</li> </ul>	<b>종합부동산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표적용률 동결 (80%)</li> <li>· 보유세 상한 하향 조정 (300% → 150%)</li> <li>· 보유세 부과기준 6억 → 9억 으로</li> </ul>
<b>법인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세율 13% → 10%</li> <li>· 높은 세율 25% → 20%로 인하</li> <li>· 낮은 세율 적용 과표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li> </ul>	<b>상속·증여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율 10%~50% → 6%~33%로 인하</li> <li>· 중소기업 상속 공제 40% (최대 100억원) 확대</li> <li>·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40%, 최대 5억원)</li> </ul>
<b>양도소득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주택 기준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li> <li>·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li> <li>· 세율 9%~36% → 6%~33%로 인하</li> <li>· 1세대1주택 거주요건 강화</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목적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폐지</li> <li>· 개인 미술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li> <li>· 카지노 사업자 개별소비세 강화</li> </ul>

이란 것이 본래 담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원칙인 이상 세금인하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불황이 시작되는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촉진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하위 47%가 면세점이 하로 납부대상이 되지 않아 중·저소득층에게 이번 감세에 따른 효과가 없을뿐더러 부유층은 지금도 충분히 소비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감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연간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17만여 기업이 낸 법인세는 세수의 1.8%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80.4%를 납부하는 대기업 2843곳에게 세액감소에 따른 효과와 귀결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이미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실제로 대단히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세에 따른 투자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단순히 법인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여건을 보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법인세만 인하하면 투자촉진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상속세의 경우 국제세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속세 납부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8,479명에 불과하였듯이, 상속·증여세는 전체 인구의 0.7%의 부유층에게만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면 그에 따른 인

하 효과는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한정될 것이다. 특히 상속세를 소득세율과 유사한 비율로 부과하고자 하는 정부안은 서민들의 근로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고, 부의 세습을 국가가 용인하는 것에 다른 아닐 것이다.

**투기 조장하는 '증부세' 완화**

증부세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증부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증부세가 특정계층에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부세 완화는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의 고액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2조 8천억 원의 세금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로 인해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교부금이 적어지고,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재정은 큰 타격을 받게 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세후 소득은 줄어들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역시 정부가 감세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 않듯, 현행 증부세에 예를 들어 은퇴한 고령자나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근로소득자가 일회로 납부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면, 주택 매도나 상속 시에 납부하게 하거나 여러 차례 분납을 하게 하는 등 납부방식의 변경이나 금액 조정 등 여러 대안들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증부세와 대출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비롯하여 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증부세를 약탈적 세제로 규정하고, 폐지에 가깝게 완화시키는 것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다시 시한폭탄을 안긴 것과 같다.

**원칙·합의 없는 조세 정책**

셋째, 조세정책은 감세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세제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조세원칙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은 이 원칙과 기준들이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대중적인 처방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를 통한 소비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단지 낮은 법인세·재산과세 비중의 개선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동을 위해 세율으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비중을 어떻게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경제재도약을 위해 왜 감세까지 하면서 세제개편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감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입을 늘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

### 세수부족 문제만 키우는 감세정책

지난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입구에 들어와 있다"고 했다.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듯, 경기침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미 충분히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들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서민생활용품의 부가세 인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감세정책의 효과는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중·저소득층은 세수부족에 따른 세후 소득의 감소만이 예상될 뿐이다.

경제 불황에 곤궁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비도 진작할 있는 감세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 대선공약이 무엇이었던, 경제정책 노선이 무엇이었던 간에 지금은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실탄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한가하게 감세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 임지순

경실련 정책실 부장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 2008학년도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6기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 16기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커리어우먼 아카데미이므로, 관심 있는 여학생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캠프일자 : 2008. 11. 14(금) ~ 11. 16(일)  
\* 금요일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에서 실시, 토·일 1박2일 캠프
- 장 소 : 파주 흥원연수원
- 모집대상 : 본교 여학생 (휴학생/졸업생 가능)
- 신청기간 : 2008. 10. 27(월) ~ 11. 13(금)
- 접수방법 : 계산관 A 1층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방문 접수  
선착순 50명 선발
- 참가비 : 1만원
- 문의 : 02)2260-8853-5 윤주영  
(이메일주소 : [alisa@dongguk.edu](mailto:alisa@dongguk.edu))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 퀼트 - 파우치 만들기

비느질 한뼘 한뼘으로 만들어지는 퀼트  
내 손으로 직접 나만의 파우치를 만들어보는 기회

〈본 예시는 실제 만들 파우치입니다〉

**선착순 20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 일 시 : 2008년 11월 13일 오후 3시
- 장 소 : 계산관 A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신청방법 : 전화접수(☎2260-8853-5)  
또는 직접방문(계산관 A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재 료 비 : 1만원

♣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재료를 내시는 분들을 우선 접수합니다.

**동국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성공 취업을 위한 2008년 5차

## '면접스킬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8년 5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목 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 효과적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8-2학기	5차	2008. 11. 15(토) 09:00 - 18:00	50명	

다. 교육장소 : 다학관세미나실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	프로그램	내 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음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뷰스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2:00-13:00	점심	상복원 식당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5:00-18:00	인사담당 실천 모의면접	- 실천면접 + 피드백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18:00-18:20	설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취업지원센터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 2008. 11. 3(월) ~ 11. 11(화)  
\*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4. 신청장소**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선발방법**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7. 선발자 명단 공고** 2008. 11. 12(수)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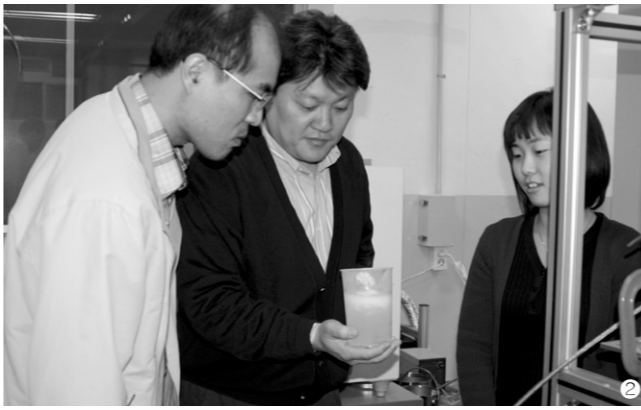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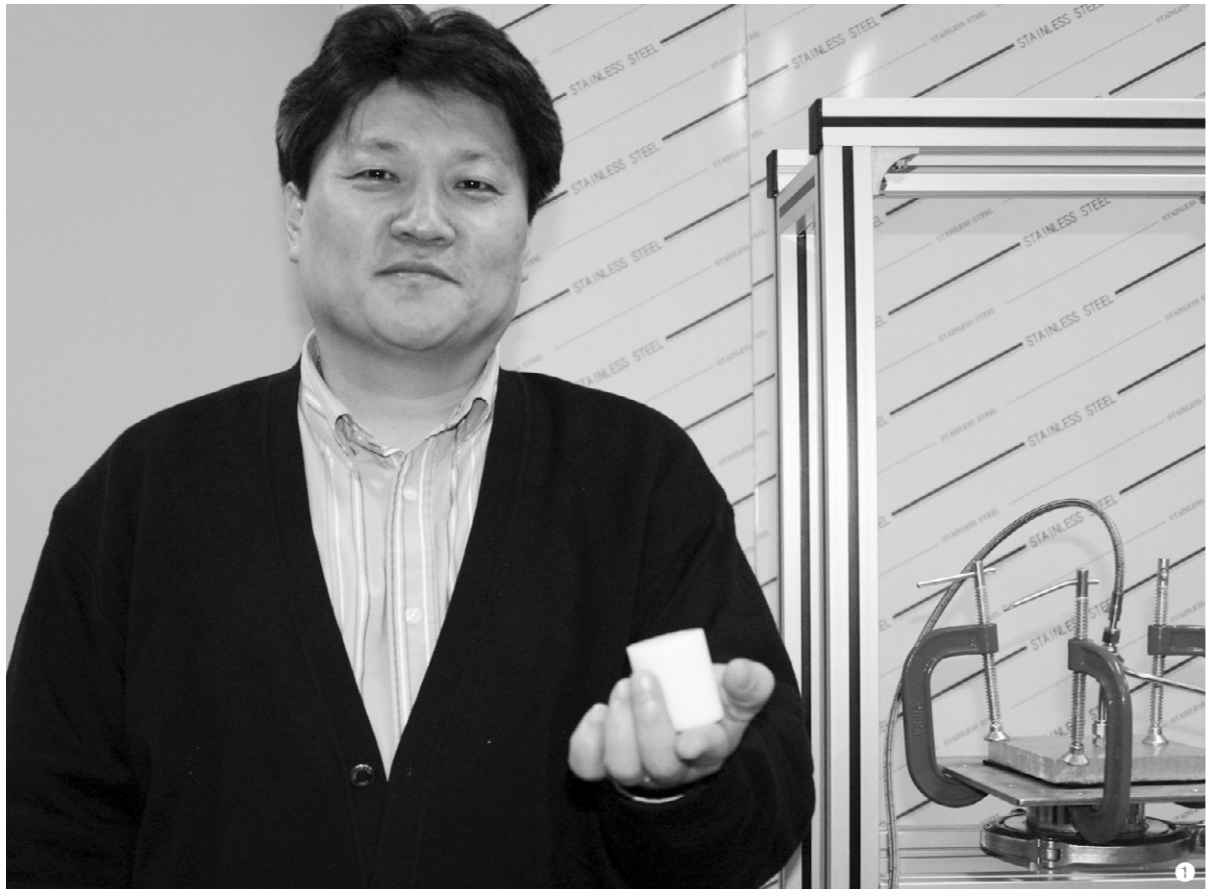
**8. 기타사항**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2260-3055)로 문의바랍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국내 최초 천연가스 고체화 기술 개발한 송명호 교수

## 청정에너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쾌거

### “영하의 온도 속 실험실서 연구 따라준 연구원들에게 감사”



① 인공 하이드레이트를 들고 있는 송명호 교수 ② 물 속에서 재가스가 되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③ 얼음 불꽃 하이드레이트

바다 속 노다지, 불타는 얼음,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

이는 하이드레이트(Hydrate)를 묘사하는 여러 수식어이다.

하이드레이트는 심해저의 저온, 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기는 고체 상태의 에너지원이다.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유사해서 이동이 편리하고 연소했을 때 공해가 없는데다 매장량마저 풍부해 꿈의 에너지라 불리고 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트를 일컬어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부르기도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하이드레이트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세계 4번째, 그리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대학의 송명호 교수팀이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송명호 교수를 직접 만나, 새롭게 개발한 하이드레이트 제조 기술과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국내 첫 기술 개발로 주목

송명호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의 공식 명칭은 ‘천연가스 고체화(Gas To Solid-이하 GTS)기술’이다. 즉 천연가스를 물 분자 사이에 주입시켜 인공 하이드레이트를 만드는 기술이다.

송명호 교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천연가스를 인공 하이드레이트로 만들

수 있는 이번 GTS기술개발로 파이프라인 건설 등 운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제성이 없어 채굴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가스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경제적으로 채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국가 적인 에너지 확보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고체화시켜 폐기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어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CO2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듯

송명호 교수는 “천연가스를 물 분자 사이에 주입시켜 인공 하이드레이트를 만들듯이, 이산화탄소를 물 분자 사이에 주입하여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를 만들 경우 압력이 높은 심해 바다에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다”며 “심해저에 폐기된 하이드레이트는 환경오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가스로 변화할 위험이 없어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교수는 또 “GTS 기술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 Liquefied Natural Gas-이하 LNG) 개발방

법에 비해 운송과 저장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수송 방법인 LNG 수송의 경우 영하 160도 이상의 극저온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극저온시스템을 유지하는 고가의 니켈사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LNG의 또 다른 수송방법인 파이프라인 또한 이송거리에 따라 수송가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규모의 가스전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에 비해 하이드레이트는 영하 20도 이하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가스를 고체화시켜 선박으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 측면에서 LNG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 중소형 가스전도 개발 가능

특히 대형 가스전의 경우 현재 수요 초과현상으로 인해 고갈 속도가 빠른데다 가격도 비싸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적인 에너지 확보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GTS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중소형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이에 따른 에너지확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GTS 기술개발에 나섰던 곳은 일부 대학의 화학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3곳 정도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처럼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하이드레이트를 연구개발한 대학은 우리대학이 처음이다.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곳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명호 교수는 “학교에서 배정받은 전용 연구 공간이 실험에 필요한 기계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부족한 공간 내에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에너지분야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송명호 교수팀이 국내처음으로 하이드레이트 기술을 개발한 실험실은 기술 특성상 영하의 온도와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악조건이었다. 추운 겨울이건 뜨거운 여름이건 영하의 기온속에서 12개월의 고된 실험을 해낸 송명호 교수 연구팀.

송명호 교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불평, 불만 없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묵묵히 실험에 임해준 연구원들에게 무엇보다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박홍규의 에드워드 사이드 읽기〉

김호성 교수의

### 비판적 책 읽기



박홍규의 에드워드 사이드 읽기  
지은이:박홍규  
펴낸곳:우물이 있는 집

“짧은 벗이여, 고독해라.”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모두 다 “외롭다”면서, 그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대에 말이다. ‘박홍규의 에드워드 사이드 읽기’의 저자, 박홍규(영남대 법대) 교수이다. ‘주제와 변주’ (인더고서원 엮음, 궁리, 2006)에서,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는 그의 팬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피은(避隱)은 나보다 몇 배 더 철저하다. 심지어 상갓집에도 안 간다 하니 말이다.

‘주제와 변주’를 보면, 그의 책은 대개 화가 나서 쓴 발본(發憤)의 서(書)임을 알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번역부터가 그랬다. 좋은 책인데, 누군가 번역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도 번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박홍규의 에드워드 사이드 읽기’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분노가 담겨져 있다. 그는 사이드가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대로 읽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뿌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동권은 외면하였고, 중요한 영문학자 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문학계에서는 사이드를 잘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제국주의’ 같은 사이드의 저서는 오역으로 범벅되어 있는데, 그 출판사는 개정판을 내지 않고 있다며 화를 낸다.

서양의 미술, 영화, 스포츠에 나타는 제국주의에 대해서까지 그는 화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는 일이 단순히 성취를 내는 일은 아닐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리라. 새로운 그 무엇이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맺음이라고 본다. 이때 ‘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서 서양이다. 서양문화다. 근대로

### 오리엔탈리즘 속 제국주의 극복을 위한 역사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확인하고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들어오면서 동양은, 동아시아든 인도이든 모두 서양의 충격 앞에 적나라해졌다.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첫째 무조건적 거부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먹혀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더 이상 책화비를 세울 수는 없다. 둘째, 서양에 의해서 동양을 고치고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에는 필연적으로 서양에 의한 동양의 왜곡이 이루어진다.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 지칭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다. 그러한 저들의 오리엔탈리즘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킬 때,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 된다. 셋째, 전통 속에서 동양의 정체성을 찾아 그 속으로 숨는 것이다. 동양화, 국화, 한국학이라는 개념들이 논해지는 마당이다. 저자는 이 세 번째 시도 역시 강하게 비판한다. (『보론 : 소위 국학에 대한 비판』 참조) 그 역시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이 내면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종의 변형된 오리엔탈리즘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을 정밀하게 밝힌 것은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다.)

그럼 대안은? 저자는 인권, 평화, 평등, 자유, 자결, 자율, 생명, 생존, 노동(p.129)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것은 서양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우리 역사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재충하는 것”(p.395)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는 서양 안에서도, 동양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같이, 기본적으로 동양을 공부하는 사람도 서양을 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 2008년도 영상문화콘텐츠 분야 특성화 장학생 선발 안내

총무로영상문화사업단에서는 2008년도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인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2008년도 영상문화콘텐츠 분야 특성화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참여학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목 적
  - 특성화 우수장학을 통한 재학생 역량강화
  - 특성화 우수장학을 통한 영상문화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발굴

#### 2. 장학생 선발(특성화 장학)

가. 장학생 선발 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장학 명칭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선발인원	신청대상
일반 장학생 선발	2008년도 특성화 우수장학	2008.11.10 ~ 11.14	총무로영상문화사업단 (영상센터)	T.2264-0160	154명	특성화사업 참여학과생

나. 2008년도 특성화 우수장학 선발기준

- 1) 2008년도 특성화분야 수상 및 발표실적
- 2) 2008년도 특성화사업 참여실적
- 3) 2008년도 특성화분야 창작실적(영화, 게임, 연극, 희곡, 시나리오, 광고)
- 4) 이전 등록학기 성적
- 5) 비교 : 특성화 장학 개인총액은 한 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함

#### 3. 신청대상

- 가. 2008년도 특성화 지원사업 참여학과 재학생
- 1) 영상미디어대학 : 영화영상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광고홍보학과
  - 2) 영상대학원 :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 3) 예술대학 : 연극학과, 문예창작학과(희곡, 시나리오 부문) 재학생

나.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성적증명서 1부
- 3) 통장사본 1부
- 4) 특성화관련 실적증명서류 각 1부
  - 국내 · 외 공모전 수상실적 - 특성화분야 국내 · 외 전문자격 취득 - 특성화과제 참여
  - 국내 · 외 공모전 참가실적 - 특성화 분야 창작 실적

4. 선발자 공고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과별 통지예정

5. 문의사항 : 총무로영상문화사업단 ☎02-2264-0160, (www.dongguk3.ac.kr 참조)

### 동국시나리오공모전 개최 안내

- ◆ 사업목적
  - 가. CT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부여
  - 나. CT중심의 대학(원) 교육 활성화
  - 다. 학생들의 창작능력 증진

#### ◆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 가. 신청자격 : 2008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수료생
- 나. 신청단위 : 개인

####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 12. 10(수) ~ 12.12(금)

#### ◆ 공모부문 : 희곡, TV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 ◆ 제출기준 및 형태 :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 ◆ 심사항목 및 배점 : 표현력 40%, 창의력 40%, 정서법 20%

#### ◆ 수상작 발표 : 2009. 1.8(목)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시상내용

수상명	선발작품(수량)	시상내용	특 전
대상	각 부문별 1명 (총 5명)	각 400만원	졸업 후 1년 이내 본 대학원 입학 시 장학금 지급(등록금 50% : 1학기 지원)
최우수	각 부문별 2명 (총 10명)	각 200만원	
우수	각 부문별 2명 (총 10명)	각 150만원	
입상	각 부문별 6명 (총 30명)	각 30만원	

-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 ◆ 유의사항

- 중복 지원은 불가함.
- 타인저작권 침해 작품, 제작사실이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상작품으로 선정된 후 해당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 및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 및 운반과정에서의 분실 및 파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주최측에서 지지 않음.

#### ◆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공모신청서 1부, 시나리오 1부

#### ◆ 접수 및 문의처 :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화빌딩 1층), 02-2260-3762-3

#### ◆ 첨부서류 : 공모전 신청서(각 부문별)

DONGGUK UNIVERSITY

# 2008 ARCHITECTURE EXHIBITION

위치 : 삼성역 휘문고 사거리 GS 자이 갤러리

일시 : 11.19 - 11.21

Archi.dongguk.edu

달하나천강에

토익유감

지난 1학기 핵심교양 강좌(글로벌 세계의 문화와 소통)의 과제로 My Plan for Summer Vacation이란 과제를 내준 적이 있다. 수강생의 대부분인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막상 과제를 받아 읽어보고 50여명에 달하는 수강생 대부분이 제시한 여름방학의 최대 계획이 다름 아닌 '영어 공부'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낭만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을 온통 토익과 같은 실용영어 성적 향상을 위하여 소비한다니 한편으로는 신입생들의 용의주도함이 대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영어공부에만 몰입해야 하는 처지가 딱하기도 하였다. 모두 취업 때문 이란다.

토익시험의 한계

토익공부만 열심히 하면 취업이 되는가? 실제로 각 기업에서는 일정 수준 이

상의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익점수가 취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기업이 토익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용 영어능력이 아니라 토익으로 대변되는 언어감각과 대학 졸업 수준의 교양 및 지적 능력이다.

외국어 구사력의 한계는 모국어의 구사력과도 모국어 구사력은 그 사람이 가진 어휘 능력에 비례한다. 또한 이 어휘 능력은 모든 창조적 원천인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잠시만 대화를 해보아도 그 사람의 교양과 지성이 곧 바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대량생산된 비숙비숙한 능력의 산업에비인력들의 교양과 지식의 정도를 토익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일정부분 확인해보려는 것이 기업의 의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토의 시험은 한계가 있다. 일정한 문제은행의 형태로 치루는 시험이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기술적인 대비를 하면 그 사람의 실제 영어실력보다 현격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객관식/단답형 시험의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은 기준치를 넘어선 토익 점수에 큰 신뢰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언어감각 확충이 우선

토익공부에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고민을 종종 듣게된다. 확원에 다녀도 그때만 반짝하는 느낌이다. 아무리 토익을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 과감히 토익책을 집어 던지고 겨울방학동안 한국/세계문화전집을 속독하기를 권한다. 문학전집을 읽고 난 후에 토익시험을 보면 전혀 영어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토익성적이 향상(재수 좋으면 아주 많이)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심성과 사교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한편, 언어감각을 확충시켜 비슷한 종류의 모든 테스트에 인간의 두뇌를 전무모드로 변환시키기 때문이다. 국어 잘하는 학생이 영어도 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용 중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전공을 물론하고 전문적 언어능력의 초기단계를 마스터했다는 뜻이다. 대학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그에 따른 교양과 지식과 인격을 함양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생긴다.

토익,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우리나라에는 2만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 기업은 대학졸업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 그럼에도 실제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거의 모두 포기한 채, 토익에만 몰두하는 것은 취업전선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제 토익이라는 망명에서 잠시 벗어나 간호 등으로 대학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많이 읽고, 많이 토론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대학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향유하기를 권유해본다. 영어를 또 다른 세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매개로 생각하고 즐겁게 공부하다보면 어느새 경쟁력 있는 영 어구사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동문칼럼

장애인이 교육 받을 권리

방귀희 동문·불교81출 숭실대학교 발행인, 방송인



최근 장애를 이유로 박사 과정 입학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대학 4년, 대학원 3년 이렇게 7년 동안 몸담았던 모교에서 차별을 받은 장애 학생은 모교에 대한 배신감에 입학 거부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를 조사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다시 구제가 된다 해도 장애학생이 받은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그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1976년도만 해도 장애인의 대학 입학이 힘들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 하지 못하면 대학의 높은 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특례입학제도가 있어서 대학이 장애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앞으로는 장애 때문에 대학 입학이 거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더니 박사과정에서 걸리 고 말았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직업적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조건을 더 보는 것 같다. 물론 장애인 가운데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친 사람도 많지만 이번에 입학거부를 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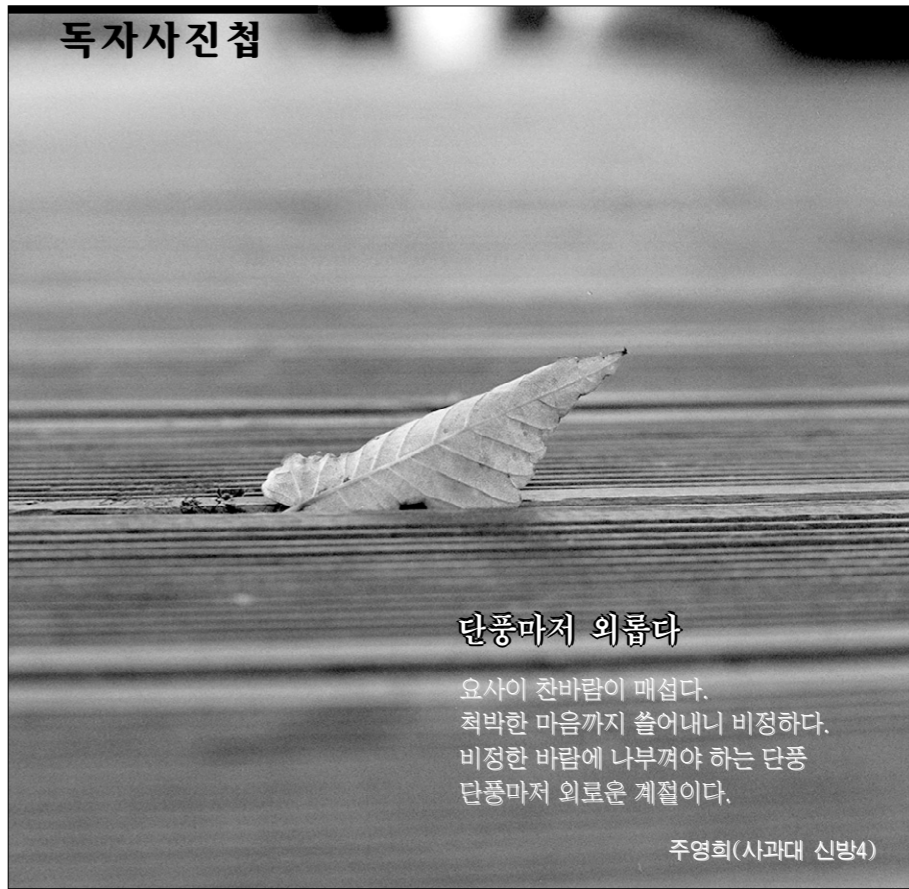
학생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어서 장애가 문제가 된 것이다.

나도 박사과정 시험에 8차례나 낙방한 경력이 있다. 그 당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낙방의 원인을 실력 탓으로 돌리긴 했지만 만약 내가 장애가 없었더라도 같은 결과였을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성의 전당 대학만큼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대학에서 장애인을 고급인력으로 키워 사회에 배출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육시키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황에서 나는 시설에 보내졌을 것이다. 시설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고 보면 결국 자립하지 못한 장애인은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대학에 보내셨고 또 동국대학교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인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받아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다.

만약 내가 공부를 계속했다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을지도 모른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도 살고 사회도 발전한다.

독자사진첩



단풍마저 외롭다

요새야 찬바람이 매섭다. 적막한 마음까지 쓸어내니 비정하다. 비정한 바람에 나무겨야 하는 단풍 단풍마저 외로운 계절이다.

주영희(사과대 신방4)

보리수

법연사계(法演四戒)

중국 송대(宋代)에 오조법연(五祖法演)이라는 선사가 있었다. 문화에는 이른바 '삼불(三佛)'로 불리는 불교극근(佛果克勤), 불안정원(佛眼清遠), 불감해근(佛鑑慧勳) 등을 배출한 당대의 고승이었다. 법연선사의 가르침 가운데 '주지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다. 선종의 일화를 모아놓은 '종문무고(宗門武庫)'라는 책에 의하면 그의 제자 불감해근이 어느 날 서주(舒州)에 있는 태평사(太平寺)의 주지를 맡게 되자 선사는 다음과 같은 경계할 점을 일러 주었다.

"절의 주지는 자기를 위해 네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권력을 다 행사해서는 안 되며(勢不可使盡), 둘째는 복을 다 누리서는 안 되며(福不可受盡), 셋째는 규율을 다 시행해서는 안 되며(規矩不可行盡), 넷째는 좋은 말을 다 해서서 안 된다(好語不可說盡). 무엇보다도 좋은 말을 모두 다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쉽게 여기며, 규율을 다 시행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반겨줄게 여길 것이다. 또 복을 다 누리면 반드시 인연이 외로워지며, 권세를 다 행사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제자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주지에 취임해서 누구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뒷날 사람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현직(顯職)에 나갈 때는 이 '법연사계(法演四戒)'를 잠계(儆戒)로 삼았다고 한다. 법연사계의 요체는 한마디로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아무리 잘났어도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말로 요약된다. 권세를 손에 쥐고 남의 뒷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다. 권력을 잡다보면 명예와 돈까지 따른다. 그러나 그걸 한꺼번에 다 누리다보면 반드시 시기를 받게 마련이다. 뒤끝에는 반드시 나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권세를 잡았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다.

더 잘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일을 삼가고, 좋은 말도 아껴야 한다는 가르침도 새겨볼수록 무릎을 치게 한다. 모범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한다는 것이다. 또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주 듣다보면 지겨워진다.

요즘 말로 하면 개혁피로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구구절절 머리가 끄덕여지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를 얻으면 잘난 척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잘 하려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남을 피곤하게 하는 줄 모른다. 어리석은 일이다.

동대신문을 읽고

학생독자층 고려돼야

동대신문 1465호(2008년 10월 6일자) 1면을 펼치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백상용원단의 사진이다. 역동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멋들어지게 잘 담았다. 그러나 사진에 붙인 제목과 사진내용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어색할뿐더러 사진에 마땅히 담겨야 했을 '가요제'의 모습 또한 없는 것이 아쉽다. 기획기사 '에도캠퍼스의 전환'은 주목도를 가능한 한 높여야 할 기사라 생각한다. 이수메이커로서 특정 학내문제에 대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사인 까닭이다. 때문에 1면에 자리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사례를 다룬 '금주의 동국인'보다 이 같은 기획기사다. 물론 '금주의 동국인' 역시 기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좋은 기사지만, 1면을 장식할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획 기사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기획의도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외부 기고를 통해 기획을 이어나가는 것은 기획 전체의 일관성에도, 취재를 통해 다듬어진 언론사만의 관점이나 분석을 내놓는 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족한 자원으로 충분한 취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기자들의 손'으로 쓴 기사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굳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가감없이 직접 담아내고 싶었다면 대답의 형식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기획 기사라기보다 마치 칼럼 면의 연장처럼 보인다.

마지막 부분의 칼럼 지면에는 지난 호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기타 사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실렸다. 의아한 것은 그 중 '학생' - '동대신문' 편집장을 제외한 -의 의견을 담은 부분이 없었다는 점이다. 피드백이란 주 독자층을 중심으로 이뤄졌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동대신문'의 독자층은 물론 동문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 모두이지만, 그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과 동시에 주요 독자층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일반 학우들이다. 현실적으로 원고 청탁과 타 언론사보다 이른 마감 일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이들과의 피드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아쉬운 부분만 구구절절 늘어놓는 듯 해 팬스레 멋쩍다. 사실 '동대신문'에 토로한 아쉬움은 교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도 일정 부분 겹치는 게 사실이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비슷한 고민과 과제를 고민하는 학내 언론의 일원으로서, '동대신문'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한다.

Advertisement for TESOL (Times English School of Language) featuring a silhouette of a person and text: '1588-1625 www.timestesol.com', '내가 토익점수 올리고 열 올리고 있을 때', 'TESOL 설명회 및 모의수업', '일시: 2008년 11월 7일 오후 2시', '장소: 동국대학교 학술관 S202호', '특전: 무료레벨테스트', '당일 등록시 교재비 50%할인', '신청방법: 이메일신청(성명, 연락처기재) marketing@timesmedia.co.kr'.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s '2009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2009 Academic Year First Semester Graduate Student Recruitment) for the 'Digital Convergence' program. It lists application dates, fees, and exam details.

Table listing admission information for '금주의 식단' (This Week's Menu) and '상록원' (Sangnokwon). It includes columns for '원' (Date), '화' (Time), '수' (Fees), '목' (Subjects), and '금' (Notes) for various programs like '신선정기유학' and '신선정기유학'.

논단

‘고교등급제’ 논란, 정당성 배제한 대학 자율화

이번 수시 2학기 전형에서 고려대가 내신 성적이 좋은 일반고 수험생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내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대거 합격시킴으로써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지로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교과 90%, 비(非)교과 10%를 적용하여 심지어 15~17배수를 뽑는 1단계 전형에서 233명 정원의 모 외고출신 수험생 중 153명이 합격한 반면, 서울 시내 일반고 출신의 내신 평균 1.8~2.1등급의 지원 학생 90명 중에서 70명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충분한 해명을 요한다.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은 일차적으로 내신등급 산출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데에 있다. 고교 내신 성적에서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른바 ‘Z값 방식’을 사용하는데, 고려대는 3단계에서 비공개 변수 ‘K값’이라는 ‘독특한’ 산출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교과영역 반영비율을 크게 낮추고 수치화하기 힘든 비교과 영역 10%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편법을 썼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비교과영역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외국어 점수 등을 우선 반영했다는 추측이다.

예견된 고교등급제

어떤 의미에서 이번 ‘고교등급제 의혹’은 충분히 예견되던 일이다. 작년에 고려대는 ‘차등내신제’라는 자체 내신 산출 방안을 적용하여 이미 논란을 일으

킨 바 있다. 당시 고려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수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학교 출신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묘안을 짜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점수 차가 큰 학교는 그대로 두는 대신에, 점수 차가 작은 학교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학생의 내신을 낮추고 하위등급의 내신을 올리는 방안이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고등학교 자체의 학력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적용 방법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교등급제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해석이 타당했는가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고, 고려대 나름대로 의도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신의 ‘데이터를 조정’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학교는 대체로 입시성적이 우수한 학교 아니면 ‘변두리 학교’일 것이다. 여기서 후자는 수능등급에서 걸러질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탈락하지만, 서울 8학군과 지방에 위치한 일부 ‘입시 명문고’가 문제가 된다. 고려대는 일반고를 포기하고 특목고를 우선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강남의 일부 학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이 있었다.

고교등급제의 문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이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의 욕망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비난의 화살을 고려대에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수학생 확보전략은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입 자율화 방침으로 개별 대학의 입시전형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수단도 사라진 이 마당에, 모든 대학들이 내신을 대체할 새로운 입시전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찌 ‘불온한 꿈’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자율화 이후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시전형이 교육공중(教育公衆)에게 확고한 정당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대는 분명히 잘못을 범했다.

고려대 입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려대의 수시 2학기 일반전형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고려대는 입학 전형비율을 미리 조정했어야 했다. 고려대 입학 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 집단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소홀했다. 아니면 교육수요자들에게 거만한 자세를 가졌다는 비난은 면할 길 없다. 물론 원칙적으로 학생을 뽑는 권한은 대학의 몫이지만, 입시과정 현상은 이러한 원론을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

학생의 창의력과 같은 고차원의 능력을 검사하는 눈높이 사라지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명목 하에 ‘역자 형태의 과편화된 논술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대학 나름의 입시전형이 학부 모집단의 동의를 조율할 정도로 절대적인 자율성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둘째,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10월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조상식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고려대 쪽의 해명서를 받아본 뒤 불분명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10월 27일자) 대교협이 2010학년도까지 ‘3불’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어서, 이러한 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대학 자율화를 천명하면서 대학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대학협의체 기구인 대교협에 대폭 이양했다. 고려대의 경우처럼 법적, 행정적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앞으로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정책이 순탄한 길을 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본질 고민 필요

셋째, 고려대를 포함하여 우리 대학들이 입시에서 그토록 골몰하는 ‘변별력’이 어찌된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들은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교육시킬 방안보다는, ‘이미 검증된’ 학생들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들의 입시정책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대학서열구조에서 득권 유지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비교육적이다. 특히 학생의 가정배경이 대학입시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 또한 방지할 수 없다.

이는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를 포함하여 대학공체 모두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사설

한 걸음씩 물러서라

교수회가 지난 달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오영교 총장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417명의 교수 중 보직·연구년·휴직 등을 제외한 347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의 능력과 자질 △수요자 중심교육의 대학본질 적합여부 △구성원의 여론 수렴여부 △신설제도의 학교발전 기여도 등에 걸친 평가 결과, 항목별로 ‘부적절’,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평균 80%에 육박했다.

학교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반발여론은 크게 우려스럽다.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이 정책 방향에 동조하지 못한다면 학교 발전은 동력을 잃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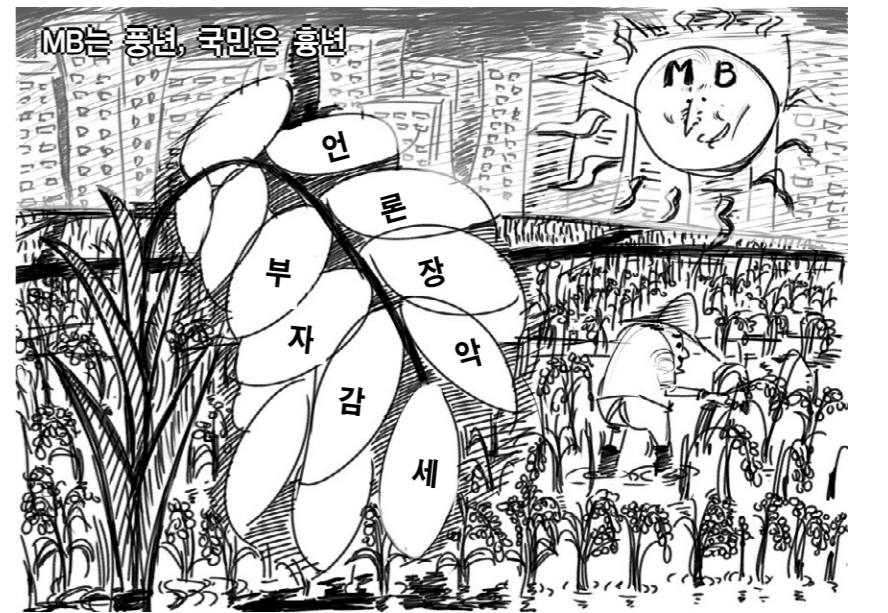
총장에 대한 교수들의 반발 원인은 성과평가, 강의평가 공개 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학교 당국이 교수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데 있다. 학교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자 개혁의 주체로 자리해야 할 교수가 개혁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책임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개혁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교수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을 때 학교 발전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변화와 발전은 교수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만이 아닌 중앙일보 대학평가, WCU 사업 등에서 드러난 우리대학 교수들의 미진한 연구 성과도 검토해봐 했다. 학교 발전은 정책방향뿐 아니라 교수연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교수회 총회 등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한다. 조직 스스로가 자정의 목소리를 낼 때 그 조직의 목소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이번 임시총회의 아쉬운 점은 또 있다. 건강권 비판이 이뤄지기 위한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교수사회가 총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것이 설문조사에 그치고 구체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참석인원이 전체교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총회를 누가 교수들의 결속된 여론으로 생각하겠는가. 총회 자리에서도 몇몇 교수들이 정족수 부족 문제를 두고 교수사회 내부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교 발전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총장과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가 같은 방향의 키를 잡았을 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당국과 교수회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정명근 gmg@naver.com

만평



메아리

뿌리깊은 나무

▲철강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에서는 성공한 기업인 보다 오히려 자선사업가로 더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는 스코틀랜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해 9살때부터 생업 전선에 나섰고 철강회사를 세워 큰돈을 번 기업인이다. 카네기는 66세가 되던 1901년,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J.P 모건에 4억 8천만달러를 받고 매각한 뒤 자선사업가로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1889년에 쓴 <부의 복음>에서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1911년 교육진보에 공헌한다는 목표로 카네기재

단을 창립, 1억 2500만 달러를 투입했다. 그가 평생 자선사업에 투입한 돈은 5억 달러에 달한다. 그는 미국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었다.

▲시민사회운동가인 마이클 오닐(Michael O'neil)은 <제3의 미국>에서 “제1의 미국은 비즈니스이고 제2의 미국은 정부, 제3의 미국은 개별적인 비영리 섹터(nonprofit sector)”라고 명명했다.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미국사회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많은 NGO와 자선단체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탠포드 대학교 전 총장이자 역사학자인 리처드 라이먼(Richard

Lyman)은 이 같은 민간의 수많은 NGO와 재단 등은 미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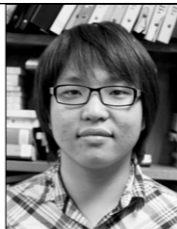
▲우리대학이 ‘동국 명예의 전당’을 개관했다. 기부자 예우 조형물 전시공간인 이 곳은 1억 이상 기부자 83명의 인적사항과 출신학교, 출생지 등이 기재된 조형물을 설치했고, 1천 만원 이상 기부한 517명에 대해서도 간략한 인적사항을 조형물에 새겨 벽면에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4대의 모니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상영하게 된다.

▲재단의 기금 조성사업 등 학교의 수

입원이 부족한 가운데 기부금 확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프로그램 마련은 기본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부금 확충의 방법이 표면적인 홍보로만 이루어져선 안된다.

이는 단기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기부금은 시민사회와 성숙이 밑바탕이 돼야한다. 이를 위해서 고액기부 뿐만 아니라, 소액 다수자의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심시일반이라고 한다. 많은 동문들이 적은 액수라도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을 기대해본다.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2008 증장과의 대화 참가 안내

남산의 단풍이 무르익어 가고 어느덧 학기의 종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작년에 이어 제2차 ‘학생과 총장 간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11월 4일(화) 12시 ~ 14시 (12:00 ~ 12:30 점심(샌드위치) 제공)
- 장소 : 경영관 L401호(100명 수용 가능)
- 주제 : 캠퍼스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의
- 참가 대상 : 학부 재학 또는 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 질의 신청 :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신청을 미리 받고자 하오니,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A4 1장 정도의 질문 내용을 첨부하여 hdk@dongguk.edu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 질문 등을 고려하여 대표 질의자를 선별 할 예정입니다.

학사 지원 본부

삶의 무늬, 글[文]

제2회 글쓰기센터 명사 초청 강연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강사 :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저서 : 독도견문록, 관해기, 북한의 우리식 문화, 조기에 관한 명상  
일시 : 2008년 11월 4일(화) 15:00 ~ 17:00  
장소 : 중앙도서관 AV실  
문의 : http://writing.dongguk.edu, 동국관 M동 4층 2260-3380 / FAX : 2260-3385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11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대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1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영의인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시: 11월7일(금) 오후 2시 ~ 4시
3. 장 소: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지하2층) 세미나실
4. 진 행: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미경 교수
5. 선정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 정운수 감독 2008년작
6. 관련도서: 아내가 결혼했다 / 박현옥, 문이당 2006년 이종결혼을 하려는 아내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심리를 역동적인 추구 이야기와 절묘하게 결합시킨 박현옥 장편소설 ‘아내가 결혼했다’를 영화로 제작 ‘비복잡적 다자연애’의 결혼관을 갖고 이종결혼한 아내를 둔 ‘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독점적 사랑과 결혼제도의 통념에 대해 솔직하고 명쾌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7. 장 원: 12명
8.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미리 읽어야 하며, 영화는 개별관람 후 입장권을 토론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0. 기타 \* 토론에 성실한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20세기 세계문학의 거장, 소설 쓰는 철학자 보르헤스 다시 읽기

제19회 저자와의 대화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상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책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행사명: 제19회 <저자와의 대화>
2. 일 시: 2008. 11. 17(월) 오후 6시 ~ 8시
3. 장 소: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보르헤스의 지팡이>의 저자 양운덕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세계무대로 끌어올린 작가이다. 체코의 소설가 카프카와 함께 전위적인 모더니즘 문학 세계를 이룬 20세기 거장으로도 꼽힌다. 저자 양운덕은 보르헤스 소설의 철학적 해체와 독창적인 재구성 등을 통해, 그리고 보르헤스와 카프카의 변주를 통해 그동안 보르헤스 해석에서 미흡했던 보르헤스의 인식론과 문학을 통해 철학을 이야기한다.
5. 내 용: 강연 및 질의응답
6. 인 원: 80명
7. 참가신청: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만 현장접수 합니다.
8. 주 최: 중앙도서관, 대학원총학생회
9. 후 원: 민음사
10. 기타 \* <작가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과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을 나눠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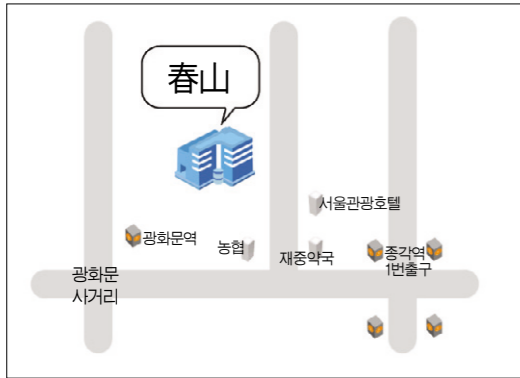


중앙도서관

### 가을거리 쓸쓸함을 채워주는 이색주점

# 대학가 술 문화에 이색적 토포핑이 필요하다

중간고사 이후, 대학생들은 잦은 술자리를 가진다. 힘든 시험일정에 지친 학생들에게 평소와는 조금 색다른 술자리를 통해 활력을 되찾아 보는 건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맥주, 사케(청주), 칵테일 별 이색주점을 찾아 색다른 주점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부드럽다’, ‘순하다’, ‘깔끔하다’. 자그마한 잔에 담기는 깨끗한 일본 술 ‘사케’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다. 최근 젊은 층의 높은 호응으로 와인 소믈리에(와인 관리 및 추천 전문가)에 이어 사케 소믈리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케 열풍은 대단하다.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술, 사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봄처럼 설레게 하는 사케가 궁금하다면, ‘종로 속 일본’ 이 곳 하루야마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일본 특유의 아늑한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이곳에서는 약 60여 가지의 사케를 취급하고 있다. 사케의 알코올 도수는 평균 15~16℃정도로, 인기 있는 사케로는 데와자꾸라와 마쓰미 카텐테 주꾸리가 있다. 한 병 마시면 다시 두병 짜

### 깨끗한 첫 맛, 담백한 뒷끝 사케와 함께 즐기는 다다끼 안주

를 찾게 만드는 것이 데와자꾸라 사케만의 특징. 마쓰미 카텐테주꾸리는 안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술로 여성들이 많이 찾는 술이다.

깨끗하고 담백한 사케의 맛, 그러나 한국인에게 술은 담백함 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한 젓가락의 안주를 더해보자. 심심한 화려함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 깔끔하게 그러나 너무 담백하지는 않은 안주들이 가득하다.

부드러운 종류의 사케에는 참치 또는 쇠고기 다다끼가 어울린다. 참치나 쇠고기를 살짝 익혀 야채와 함께 샐러드 형식으로 먹는 이 안주는 폰즈 소스와 곁들이면 부드러운 사케와의 조화에 이만한 안주가 없다. 반면 맛과 향이 강한 사케 종류에는 주로 구이나 오뎅탕 종류의 안주가 적합하다. 그 밖에도 문어와 야채를 와사비 소스와 함께 먹는 문어 와사비 무침은 하루야마만의 야심찬 안주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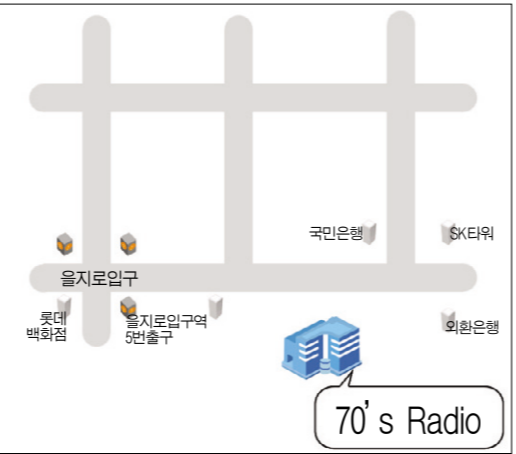
사케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잔 한가득 담아 오늘 저녁 사케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하루야마(春山)를 이용하는 Tip

온나카베라는 사케는 ‘여자를 울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사케의 이름에는 역사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문하는 사케에 대해 역사부터 지나는 의미까지 직원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마신다면 다소 색다른 감회를 느껴 볼 수 있다. 사케 1병(720ml)의 가격은 평균 60,000~80,000원이며 안주 가격은 평균 15,000~18,000원이다.



### 세계 각국 맥주에 곁들여지는 올리브오일 드레싱 샐러드 별미



계를 여행하며 보는 즐거움을 느끼듯 이곳에서는 한 잔 한 잔 세계의 맛을 만끽해 볼 수 있다.

다양한 맛의 맥주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르고 나면 또 다시 행복한 고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시원한 맥주와 콤비를 이룰 안주를 찾아내는 일이 그것. 포피아 위에 매콤한 살사와 부드러운 모자렐라 치즈를 뿌려 구운 치즈 나초는 이 곳 사장님의 강력 추천 메뉴다. 혹시 배탈 걱정에 안주 먹기가 꺼려지는 여성들이라면 70's Radio만의 특별 메뉴 70's Salad를 추천한다. 새우, 닭 가슴 튀김에 검은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섞어 만든 이탈리아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로 탁월한 맛에 비해 칼로리는 적은 음식이다.

“축다, 축다” 11월을 보내기보다는 맥주의 취기에 의지해 따뜻하게 가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 ▶70's Radio를 이용하는 Tip

매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Happy hour로 모든 주류와 안주가 20%할인된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마시는 것도 알뜰한 방법. 이번 호 동대신문을 가지고 가면 가게에서 직접 만든 오리진샐 칵테일(말레이시안 스카이, 스위트 마오리 중 택) 한 잔이 무료. 맥주 1병의 평균 가격은 6,000~12,000원이며 안주 가격은 평균 14,000~20,000원이다.



‘그림의 떡’이 더욱 아쉬움을 더하는 까닭은 백만 번 마음에 들어도 자신이 소유할 수는 없는 떡이기에 그렇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일까.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이 마음에 속 드는 칵테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혀로 느껴지는 맛도 일품이지만, 그에 앞서 시각적으로 보는 흥미진진함이 있는 술 칵테일. 술 인듯 아닌 듯, 살랑살랑 목을 적셔주는 맛이 칵테일만의 승부수다. 술은 마시고 싶은데 술이 약한 사람, 분위기 좋은 곳에서의 가벼운 한 잔을 원한다면 꼭 안성맞춤이다.

테라스 쪽에 앉아 청계천을 그림 삼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70여 가지의 칵테일 종류가 있다. 칵테일의 실제 알코올 도수는 평균 28~29℃이지만, 체감 도수는 12~1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술 감지 않은 오묘한 술이다.

일레븐에서는 대표적으로 복숭아, 오렌지, 라임 등의 맛이 나는 액과 함께 알코올이 섞인 달콤한 맛의 카시스프라페 칵테일과, 보드카, 럼 등으로 이루어진 독하고 진하면서 상큼한 맛이 나는 통아일랜드 아이스티가 있다.

칵테일 자체만으로 제 값을 특별히 하는 덕분에 특별한 안주보다는 고소한 나초가 가장 잘 어울린다.

화려함과 소박함의 조화를 통해 칵테일 고유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 맛과 멋, 둘 중 하나의 양자택일(一)이 아닌 양자택이(二)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칵테일. 더 이상 술의 즐거움은 마시는 데만 있지 않다.

그림의 떡을 소유할 수 있으니, 벌써부터 골격하는 목 넘김 소리가 들린다.

#### ▶일레븐을 이용하는 Tip

이번 호 동대신문을 가지고 가면 11월 한 달 동안, 칵테일을 시키면 나초는 무료로 제공된다. 칵테일 한 잔의 가격은 평균 7,500~9,000원이다.



김필란 기자  
lan@dongguk.edu